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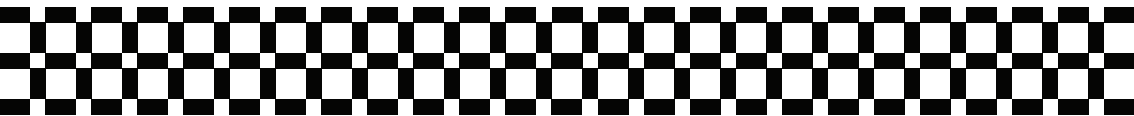
FREE PRACTICE



- ① 김동섭
- ② 김성식
- ③ 신호철
- ④ 영배
- ⑤ 광지유
- ⑥ 김우진
- ⑦ 박성민
- ⑧ 구자명
- ⑨ 임선구
- ⑩ 김예솔
- ⑪ 김민희
- ⑫ 다이
- ⑬ 양기찬
- ⑭ 최희원
- ⑮ 이제원
- ⑯ 류민지
- ⑰ 정현두
- ⑱ 박시오리
- ⑲ 오지은
- ⑳ 장종훈
- ㉑ 광인탄
- ㉒ 김도연
- ㉓ 이상균
- ㉔ 하성욱

2025. 1. 17. - 2025. 2. 15.

ROY GALLERY



0. 프리 프랙티스: 연습 주행

미술은 점차 매체의 투명성보다 불투명성을 강조하며, 이제 매체는 더 이상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기능할 수 있다. 미술도 사실 대중문화만큼 유행을 타고, 의지만 있다면 미술에 관한 거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시대라 작가는 본인이 쥐고 있는 매체에 대한 변화를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받는다. 그러나 매체의 변화는 단순히 기법의 문제를 넘어선다. 작가의 의도와 과정이 그 변화를 뒷받침하며, 최종 산출물은 그 당위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이번 전시는 포물리 1(F1)의 '프리 프랙티스(Free Practice)' 세션에 착안하여, 작품 완성 이전의 실험과 탐구 과정을 미술의 맥락에서 조명한다. F1에서 프리 프랙티스가 본 경주를 준비하는 일련의 단계라면, 이 전시는 작가들이 작업 중에 겪는 조형적 실험과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작가는 미술을 경주(傾注)할 새로운 "서킷"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궤적은 미학적 탐구로서의 연습 주행에 해당한다.

작가는 무의식과 신체 동작까지 포함된 모태적 조형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익숙하게 다루어 온 매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매체의 변환은 드문 일이며, 새로운 매체로의 전환은 성인이 생소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심리적, 인지적 부담을 동반한다. 그러나 새로운 매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낯설은 자국이 되고, 이는 작가가 본인의 세계를 넘어서 나아가도록 한다. 이때 기존 매체의 관습적 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작가에게 보다 능동적인 실험이 요구된다.

매체는 기술적, 시간적 변화를 따라 끊임없이 가변적 경계를 지니며, 이는 과거에도 회화와 사진, 회화와 영상 간의 경합과 상호작용에서 발견된 바 있다. 오늘날 디지털 도구의 발전은 이러한 매체의 경계를 더욱 불명확하게 만들며, 경계 간 실험을 촉발한다. 매체의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이동이 아니라 예술적 사고와 표현의 변화를 수반하는 시스템의 재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보유한 매체가 이미 내재해 있는 잠재된 창작을 구현하지 못할 때, 실험을 통해 새로운 매체를 탐색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작가에게 단절과 새로운 연결을 모색하는 과정이며, 시류와 맞물려 미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매체의 확장은 일회적이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작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작가들은 끊임없이 익히고 실험하며 자신의 경계를 확장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1. 김동섭

김동섭은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며 입체와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기능적 요건에서 출발하여 구조적 형태를 상상하고 물질로 형상화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주변 환경적 영향이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형태를 구체화 하고 이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이러한 기능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형태를 만들어 왔다. 최근에는 재료를 가공하고 조합하는 방식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 공간에서 배치되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쓰임을 다하고 버려지는 재료를 이용하여 부피감을 만들고 스스로 직립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를 다룸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재료가 가진 고유 의 물성과 형태이다. 재료의 물성과 형태는 그 쓰임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며 재료에 응축적으로 반응하여 스케일을 결정하고 재료를 붙이거나 깎아내며 작업을 만든다.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2017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

개인전

2024 «물이 고인 땅», 팩션, 서울

2020 «원이 빚겨간 자리», 공간 가변크기, 서울

단체전

2023 «얽힌 시나리오», case seoul, 서울

2022 «몸뭉»,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29-2 옥상, 서울

2021 «사람 모양 재료», 라라맨, 서울

2020 «조조모모»,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9 «불안과 익숙해질 무렵», 임시예술공간 비보호, 서울

2019 «더스트 사우스 아트페스티벌», 김해시 호계로 277번길, 김해

프로젝트

2019 청년예술단x강북구 <발칙한 상상>, 강북문화재단/서울문화재단

https://www.instagram.com/eawestp_/

1. 김성식

a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보고 그린다.

위 과정을 반복한다.

b

형태를 형태로서 보는 방법, 형태와 공간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2. 색, 형태, 눈, 손에 대한 메모

a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꿈을 꾸곤 적이 있다. 때문에 손으로 더듬거리며 주변을 조금씩 파악해 나가며 눈이 멀쩡 했더라면 한순간에 이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순식간에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물론 눈이 멀어도 그림은 그릴 수 있다. 이를테면 앞을 보지 못하는 화가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을 통해 화면의 형태들을 구성한 뒤 색으로 채운다.

b

시각장애의 종류는 다양하다. 원근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흔한 듯하고, 야맹증과 같이 어두운 환경에서 시각 능력이 떨어지거나 시야의 범위가 줄어들기도 하고 색맹이나 색약처럼 특정 색에 대해 약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궁극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화가의 경우에도 색을 사용한다. 이때 이 시각장애인은 비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야 할까?

b-2

눈은 앞에 있는 색과 형태를 동시에 볼 수 있다. - 손은 형태를 만질 수 있지만 색을 만질수는 없다. (이 사실이 촉각의 열등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

꿈속에서 손으로 더듬거리는 행동은 작업과정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각과 촉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회화에는 촉각적인 감각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하게 화면 안에 그려진 시각물에서 촉각적인 감각을 연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 인간의 감각은 이미 오감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고 예술 작품도 오감 중 한 요소에만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통합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d

일반적으로 색은 감정과 연관 짓는다. 해질녘 노을을 볼 때 느껴지는 것들, 색들이 상징하는 내용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형태는 보통 논리적인 것과 연관 지어지는데 구조적이고 견고함, 특히 기하학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색은 그 물리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체계로 분류되고 조직될 수 있는 반면 형태는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에서부터 유기적 구조(이를테면 구름, 인간의 신체, 식물의 다양성...) 등의 이유로 색과 같은 방식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e

내 연작은 내 그림을 반복해서 모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동기, 충동, 왜곡이 생기고 비슷하되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림을 그린 동시에 감상하는 입장이 된다. 촉각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전

2019 더/ 더 해보기/ 어떻게든 더, 가번크기

2022 그린, 룡-넥스, abms

2023 십자구도, ebb&flow

단체전

2024 A PIECE OF PAPER, 갤러리 프로젝트 케이

2023 PAPERFOLIO, GalleryX2

2023 Paper, Practice, caseseoul

2023 흰 그림, Factory2

프로젝트

2019 CRR PROJECT 고안철 기획

1. 신호철

제도권 미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 의구심은 미술계 내에서의 지속적인 노동을 통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간략한 나의 이력은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2022년 베니스비엔날레, 2023 아트바젤 스위스, 그리고 2024년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형 갤러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였다.

2. 항상 작품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입장에서 나에게 작품보다, 작품의 설명서 혹은 운송스티커 등 작품 그 자체보다는 외적인 것들이 더 가치있게 느껴졌다. 다시 말해 크레딧이 해체되고, 포장이 벗겨져서 전시 되어있는 모습보다, 포장된 상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개인전

2022 'Bellagio(벨라지오)', 공간형, 서울

2021 'Lay flat to unpack', LKIF GALLERY, 서울

2020 'Fragile masterpieces', ANA GALLERY, 서울

단체전

2023 '더비매치:감시자와 스파이', 뮤지엄헤드, 서울

2023 '물상연마', Case Seoul, 서울

2022 '열 개의 달과 세 개의 터널', 토탈미술관, 서울

2022 'UP-CLOSE', 하나은행 개방형 수장고 H.art1, 서울

2022 '서초동 매미', 서리풀갤러리, 서울

2022 'Collector's Cut', 스페이스소, 서울

2022 'object, Almost', 공간형, 서울

2022 '신호철,허호 2인전 MARCH', 킵인터치, 서울

2021 '서울 25부작 100개의 아이디어', 문체부 온라인전시

2020 'CAMP2020 Contemporary Arts & Mutational Plans CAMP2020 Contemporary Arts & Mutational Plans', 캠프롱 미군기지, 원주

2019 'I am an artist born in 90's' 에스팩토리 D동, 서울

2019 '부유하는 뽕돌'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2018 '제로원데이 캠프' 현대자동차 원효로, 서울

2018 'Unification' 복합문화공간 바이산, 서울

레지던시

2019 '리즘 레지던시', 창원

글

2022 '이탈리아 불로초 여정', 뉴스페이퍼 3호

수상경력

2018 '전국업사이클대전' 금상,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광명

<https://www.instagram.com/shinhocheoll/>

1. 영배

조각, 설치, 사진 등의 매체를 다루는 시각예술가이다. 사물이 사회적 맥락에서 정체성을 잃거나 변형되는 순간에 주목하며, 이를 기록하고 수집하여 소외된 사물들이 가진 미학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는 작업을 통해 사물을 본래의 정체성(기능적, 사회적 역할)에서 해방시킴으로써, 그것이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구성하도록 만든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가 실재를 재현하거나 왜곡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관객의 감각과 상상력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2. '행복을 팝니다', '삶의 감동을 주는 교육 하버드 어린이집', 'INCLUSION & DIVERSITY' 풍선 위에 새겨진 문구들은 사물과 욕망에 부여하는 현대 사회의 허구적 약속과 집단적 희망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 메시지들은 바람이 빠진 풍선 위에서는 의미를 잃고, 납작해진 채 길위의 잔재로 남는다. 어떤 이의 발에 붙어 흘러온 것인지, 아니면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것인지 외딴 골목길 위에서 소멸되어가는 풍선들을 마주한다. 팽창과 수축이라는 두 가지 상태를 가진 풍선은 공기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부풀어 오를 때 주목을 끌지만, 바람이 빠진 순간 쓸모를 잃고 무의미해진다. 작업은 그 소멸의 순간에 집중하여, 납작해진 풍선들을 모아 완벽한 구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작품 안에서 풍선은 단순히 행사가 끝나면 폐기되는 일시적인 사물이 아니라, 시간과 맥락,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존재로 다루어진다. 그것은 일회적인 것을 영속적인 것으로 전환 시키며, 사물이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한 후에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201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수료

2013 경북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전공 졸업

단체전

2023 <물상연마>, case Seoul, 서울

2022 <프로-포즈>, SAGA, 서울

2021 <나누고, 더하고, 연결되고>, 아트스비 갤러리, 서울

2021 <커넥트 플러스(Connect +)>, Medici MSquare/ 온라인 갤러리, 서울

2020 <#생존신고>, 수창청춘맨손, 대구

2020 <처용자문무(處容自問舞)>, 복합문화공간 야.시.시, 서울

2018 <골목 유랑기>, 공주시 제민천1길 53-2, 공주

2018 <취향은 존재의 집>, 대안공간 눈 1전시실, 수원

2017 <ImageNationParis>,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Paris

2017 <한입-만행>, 서교예술실험센터 1호실, 서울

2016 <La projection experimentaale>,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Paris

2016 <une question mille réponses>,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Paris

2016 <Reality check>, HoMa, 서울

2014 <TRUE COLOR>, HoMa, 서울

2012 <ASYAAF 문화역에 내린젊음>, 문화역 서울 284, 서울

2012 <Young Artist Art Festival>, 범어 아스트리트 갤러리, 대구

2012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아토리 갤러리, 대구

레지던시

2016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France, Par

<https://www.instagram.com/Obae.archive/>

1. 학지유

국민대학교 회화과를 중퇴하고 독일 할레 미술대학교 페인팅 전공 디플롬 졸업하였다. 독일에서 개인전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Gallery Ricarda Fox, 2022), 단체전 《Kaleidoskopia》(Halle 14 슈피너라이, 2021)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졸업 후 'AADK 스페인 레지던시 프로그램'(2021~2022)과, 핀란드에서 'The Åland Archipelago 레지던시 프로그램'(2023) 등에 머물며 자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유기적인 선들을 통해 연결, 혼합, 공유의 의미와 자연 그 자체의 따뜻함, 위로, 공동체 의식등의 감각을 반영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단체전 《DEMI》(케이스 서울, 2023), 《RANDOM PAGES》(갤러리 SP, 2022)에 참여하였고 2024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더 소소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2. 여행 중 나는 호숫가에 앉아 쉬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도시락도 먹고 그림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내 앞에는 항상 그 안을 보여주지 않는 거대한 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호수는 나의 몸과 마음을 끌어당기며 항상 내 작업의 중심점이 되었다. 호수에 대한 나의 감상은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였다. 차분하고 멈춰있는 듯한 호수는 가만보면 강을 흐르게 하고, 비를 내리고 나무를 키우는 꽤나 역동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나의 그림은 형체가 없이 존재한다. 선이 많고 가끔은 뭉쳤다가 풀어졌다가, 채워졌다가 비워졌다가 한다. 언뜻 사소해 보이는 형상들은 나의 관심에 따라 모든 것을 뒤집기도 한다. 그림에서 예측 불가능한 마추침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도록 이끌어 주며 다음 작업으로 이어진다. 드로잉 작업을 통해 고정된 시선에서 벗어나며 안과 밖의 경계가 희미한 무언가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에게 드로잉이란 가장 내밀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드로잉하는 행위를 통해 완성이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연결되고 순환하며 그리는 행위 그 자체에 머물고 싶어 한다.

2014-2020 독일 할레 미술대학교 페인팅 전공 디플롬 졸업

2011-2012 국민대학교 회화과 중퇴

2008-2010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4 WAS IST DA DRIN?, 더 소소, 서울

2023 곁:Laye rs, 아틀리에 키마, 서울

2022 Some thing Ra the r than No thing, Galle ry Rica rda Fox, Mülheim

2020 D rawe rs D rawe rs, Galle ry Vol kspa rk, Halle

2017 Things that G row, Bu rg Galle ry, Halle

단체전

2024 Flowing Signs, 옥상팩토리, 서울

2023 A r tg round London, S aa tchi Galle ry, 런던

2023 DEMI -, CASE SEOUL, 서울

2022 Random Pages, 갤러리 SP, 서울

2022 Swee t Af te r Bit te r, P rojec t Raum Bubble Bauch, 베를린

2021 Kaleidoskopia, Halle 14, Spinne rei, 라이프치히

2021 St a r 55 Male rei Zeichnung G ra fi k, Gopea 쿤스트라움, 바트 벤트하임

2020 Gopea Foe rde rjah rgang 2019, Villa de Bank, 엔스헤데 네덜란드

2019 Halle 14 Klasse Tilo Baumgae rtel, 슈피너라이 라이프치히

수상 및 지원

2024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개인전 지원

2023 THE ÅLAND ARCHIPELAGO ARTIST RESIDENCE 핀란드 레지던시 초청 작가

2022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아카이브 작가 선정

2021 AADK SPAIN 레지던시 프로그램 초청 작가

<https://www.instagram.com/kwakjyiu/>

1. 김우진

저는 사물의 운동성과 시간성을 조각의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감각을 바탕으로 시각적 표현을 탐구하며, 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드로잉, 설치, 조각,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를 재현해 왔습니다. 저는 완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상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외부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양가적인 현상(대상간, 물성간 대립되는 상황)을 통해 전달되며 작업적 태도로써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실제적 대상을 상상하며 허공에 틀을 떠내는 방식으로 형태를 제작하며, 감각과 기억에 의존해 대상을 재현하는 조각적 탐구를 시도합니다. 비록 허공을 떠내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는 대상을 떠올리고 덩어리감을 연상하며 조각의 물성, 운동성, 시간성을 감각하는 과정입니다. 작업은 휴지와 고무액을 활용해 적층의 단계를 다양하게 실험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조와 수축이라는 재료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휴지는 표면을 형성하고, 고무액은 이를 고정합니다. 이를 통해 펼치거나 뭉치고, 주름을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를 구현합니다. 흙을 빛는 것처럼 휴지와 고무액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 틀을 만들고, 떼내고자 하는 대상을 양각 또는 음각으로 표현해 갑니다. 이는 감각으로 비롯된 상황을 떠내는 행위이자, 비물질적 대상을 물성을 통해 물질화/재해석하며 재료가 가진 유기적 형태를 새롭게 탐구해 갑니다.

201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202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졸업

개인전

2018 <840620>, 공간형, 서울, 한국

2020-21 <소화하는 사이>, 쉬프트(shift), 서울, 한국

단체전

2019 <xoxo>, 누크갤러리, 서울, 한국

2023 <-DEMI> 2인전, CASESEOUL, 서울, 한국

2024 <Flowing signs>, 옥상팩토리, 서울, 한국

<https://www.instagram.com/dnwsl/>

1. 박성민

박성민의 작업을 살펴다 보면 마치 명민한 관찰자처럼 작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대상을 향한 작가의 시선은 형상적 표면 위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대상을 둘러싼 여러 조건을 되물으며, 일상의 개인적인 경험을 자원으로 삼아 여러 다양하고도 비범한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내니 말이다. 작가로서의 위치에서, 때로는 보편적 개인의 자리에서 박성민을 둘러싼 여러 환경과 조건들은 언젠가 발견을 기다리는 잠재태처럼 존재한다. 그리고 그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가끔은 미술사와 같은 거대한 서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살피며, 나름의 질문을 던대어 그들의 존재 양식을 되짚어본다. 이는 마치 불가해한 세계의 일각을 뜯어내어 세심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려는 것과 같다. 뒤샹의 발견이 그러했듯, 박성민의 관찰 그리고 발견의 순간에서 일상적 대상물의 본질과 기능은 재해석되고, 익숙한 사물은 새로운 시각성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2. 입력과 출력, 행위와 반응, 수용자와 전달자처럼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용을 일컫는 피드백. 초기에는 음향기기를 활용해서 리얼타임으로 생성되는 무한한 진동과 연결케이블이 전시공간을 점유하는 형태로 보여주었습니다. 고립계이자 독립계인 이 현상을 관람자 앞에 던져놓았던 것은 그 모습을 달리하며 원형, 사각형, 삼각형, 그리고 별 모양으로 변주되어오고 있습니다. 말레비치부터 잰스퍼 존스까지 훑고 있는 듯한 이 작업은, 오늘날 재귀적이고 연역적인 형태로 미술사를 재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진동과 선이 만들어내는 형상의, 불가분한 관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과도 같은 방식으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학부 졸업
20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24 12, IAH Seoul, 서울
2022 AXIS, Hall1, 서울
2020 REGEN, SOSHO, 서울

단체전

2023 Reflection, IAH, 서울
2023 POOL/TOOL, 3Q, 서울
2023 case Seoul, 얽힌 시나리오, 서울
2021 IMA Picks 2021 무대에 관하여, 일민미술관, 서울
2021 견고하고 유연하게, 카다로그, 서울
2020 Goldilocks : Bi-Compax, , 신도시 서울
2019 Delay Kit, SOSHO, 서울
2019 조각그림, 위캔드, 서울
2019 아편굴, 가변크기, 서울
2019 소우주의 신, 합정지구, 서울

https://www.instagram.com/stone___park/

1. 구자명

기술 미디어와 동기화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대 환경 속 인간 신체가 겪고 있는 감각의 상실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경험이 미술 실천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다. 최근에는 우리 주변 세계를 구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앱, 웹사이트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두고, 그것의 형태를 관찰하거나 미디어 자체인 프로그램의 코드 정보를 물성을 가진 조각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주제로 발표한 전시는 《모노코크: 정원의 원리》(스페이스 애프터, 서울, 2023), 《소프트웨어의 성장과 형태에 대해》(인천아트플랫폼 G3, 인천, 2021), 《웹사이트 구조의 편집 방법 개발》(윌링앤딜링, 서울, 2020)이 있다.

2.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를 살피는 일이 잦아졌다. 스마트한 장치들에서 경험하고 활용하던 단순 도구로의 접근이 아닌, 미디어 그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것이 가진 형태에 관한 질문이 되었다. 지금은 사차 없이 보급되는 소프트웨어 기술 덕분에 누구나 장벽 없이 세상 만물을 출력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지만 정작 소프트웨어를 들추어내기 위해 애써 시간을 투자하는 명칭이는 없었기에, 한동안 프로그램의 언어를 영뚱하고 투박하게나마 익혀가며 소프트웨어의 형상을 생물학의 방법을 활용하여 물질에 새겨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문서 파일 안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해 놓은 문제해결 절차인 코드는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구조, 상호작용 방식을 나열한다. 프로그램의 유전자 지도 격인 코드를 역으로 뜯어보는 일은 문자와 도식에만 구성된 설계 도면을 해석하는 것과 유사한데,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이 과정에서 필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구조로부터 대상을 읽어내는 기술이다. 때문에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습관은 좌절되며, 몸에 배어 있던 감각들이 점차 프로그램의 체계와 절충하고 동기화되어 간다. 인간 신체와 감각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만 살아남는 소프트웨어의 기구한 운영에 끼여들기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가 되어야만 한다.

18세기, 건축 이론가인 '마크 앙투안 로지에 Marc-Antoine Laugier(1713~1769)'는 당시 만연했던 바로크 건축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로부터 건축의 원형을 다시 살피고자 노력했다. 그가 자연의 원리, 즉 자연의 내부를 포착해 건축의 언어로 옮겨내면서 떠올렸을 기대, 가능성과 같은 것들이 어찌하면 내가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마주할 때 가지는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장식이 출몰하는 세상에서 이미 존재를 감춰버린 소프트웨어의 뒤를 추적해 읽어낸 정보로부터 조각의 형태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문서에서 해방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나가 보려 한다.

202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석사 졸업

2016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3 《모노코크: 정원의 원리》, 스페이스 애프터, 서울

2021 《소프트웨어의 성장과 형태에 대해》, 인천아트플랫폼 G3, 인천

2020 《웹사이트 구조의 편집 방법 개발》, 윌링앤딜링, 서울

단체전

2024 《송은미술대상전》, 송은, 서울

2024 《이름을 문지르며》, 일우스페이스, 서울

2024 《협업의 기술》,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3 《당신에게 말을 거는 이유》,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2023 《Pancake Swap》, 케이스 서울, 서울

2023 《ghost light》, 스페이스 애프터, 서울

2023 《집괴》, 금천예술공장 P333, 서울

2022 《봐요, 만저요》, AlterSide, 서울

2022 《터치스톤》, 신한갤러리, 서울

2021 《공중체련》 라라앤 서울

2021 《계란후라이, 선홍빛, 나, 골드베르크》, 금나래아트홀, 서울

2021 《그리니치 천문대를 공격하라》, SAGA, 서울

레지던시

2023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2021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1. 임선구

삶의 언저리에 스며들어 있는 타인의 흔적들을 드로잉의 어법으로 서술한다. 개인의 내밀한 역사가 여러 세대와 교차하며 만들어 내는 우스꽝스럽고 기묘한 장면들을 포착하고, 나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로 전이되는 순간에 주목한다. 종이와 흑연을 기반으로 흘러지고 증발하는 기억과 이야기를 끌어모아 입체적인 서사를 구축해 나간다. 《축성법》(금호미술관, 서울, 2024), 《보이지도않는꽃이: 발자국을 발굴하기》(서울시립미술관 세마참고, 서울, 2022) 등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서울시립미술관, 두산갤러리, MMCA어린이 미술관 등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2. 종이와 흑연을 기반으로 삶의 언저리에 산재하는 흔적들을 엮어 다양한 층위의 드라마를 만든다. 서글프고 곱고러운 개인의 역사와 여러 세대가 교차하며 만드는 우스꽝스럽고 가벼운 순간을 포착해 연약한 바탕 위에 켜켜이 안착시키는 행위에 집중해 왔다. 최근 작가는 종이 드로잉을 분해하고 구겨내는 과정에서 나아가 서로 다른 출처의 종이 파편들이 서로를 기워내는 과정에 주목한다.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동시에 미약하고 험거운 상태인 재료가 다양한 공정을 경유해 견고해지는 상황을 응시한다. 나머지를 그러모아 다시 온전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일은 흘러지고 사라질 법한 크고 작은 이야기 단위를 한데 모아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나가는 본인의 작업 과정을 드러낸다. 여전히 위태롭지만 서로를 지지하는 드로잉 조각들은 나와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장면을 투영하고 삶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게 한다.

20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석사 졸업, 서울

20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학사 졸업, 서울

개인전

2024 《축성법》, 금호미술관, 서울

2022 《보이지도않는꽃이: 발자국을 발굴하기》, SeMA참고, 서울

2019 《종이위의 검은모래》, 갤러리 조선, 서울

단체전

2024 <반짝이는 숲 속에 존재하는 섬>, 갤러리인 HQ, 서울

2024 <협업의 기술>,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4 <흔적이 형태를 이룰 때>, 해동문화예술촌, 담양

2024 <다섯 발자국 숲>,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 미술관, 과천

2024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갤러리SP, 서울

2023 <커튼콜>, 양주 장욱진 시립미술관, 양주

2023 <소케이시:정원술>, 인천아트플랫폼 윈도우 갤러리, 인천

2023 <팬케이크 스왑>, 케이스 서울, 서울

2022 <Mbps with PACK>,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서울

2022 <Touch Stone>, 신한갤러리, 서울

2022 <화가별장>, 양주시립 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양주

2022 <두산아트랩 2022>, 두산갤러리, 서울

2021 <아이콘>, 학교재 갤러리, 서울

2021 <낮선 여정>, 드로잉 룸, 서울

2020 <세발로 걷는>, 공간서울, 서울

2020 <전시 후도록>, WESS, 서울

2019 <Y군의 불타는 비행기>, Lab203, 서울

2018 <Painter's Painter>, 2W, 온라인 기획전시

레지던시

2023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출판

2023 <먼지로 세운 성>, 드로잉 에세이, 드로잉룸 2022 <시금석:우정의 장치>, 공저, 밀피유 타임라인 2020 <

숨은 산>, 플립북, 밀피유 타임라인 2019 <검은 모래>, 드로잉북, 독립출판 2019 <Cabinet Vol.8>, 공저,

일현미술관 도서지원 발간 프로젝트

수상 및 지원

2024 청년예술지원 창작발표형, 서울문화재단, 서울 2023 청년예술지원 창작준비 리서치형, 서울문화재단, 서울

2022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2 청년예술지원 창작발표형, 서울문화재단, 서울 2021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연구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20 최초예술지원: 창작발표-다년형,

서울문화재단, 서울 2019 최초예술지원: 창작발표-다년형, 서울문화재단, 서울 2017 일현 트래블그랜트 특상,

을지문화재단, 양양

<https://www.instagram.com/sun9o0o/>

1. 김예솔

김예솔 본인의 작업은 과거의 시간성을 현재로 끌어와 현상화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기억과 연결된 오브제를 움직이며 몸의 흔적을 남기는 형태로 점차 확장되어왔다. 키워드는 '체험' "놀이" "시간의 흔적"이다. 최근에 이르러서 본인의 관심은 개인의 기억으로부터 확장되어 나타난 공간과 사물,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을 생각한다.

2016 건국대학교 현대미술학과 졸업

2023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현대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23.11 <나는 그림을 그리는 중입니다>, case seoul, 서울

2022. 07 <Willow>, oci미술관, 서울

단체전

2024.11 <운명적 데이터>, 버징가, 강릉

2024.09 <positive-sum>, 라라빌딩, 서울

2022.09 <몸뭉>, 성동구 도선동 329-2 옥상_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 A트랙, 서울

2021.10 <땅.땅.땅> 에프터선데이클럽_성남문화재단 청년예술창작소, 경기

2021.09 <탈출 가능한 우물>, 을지로오브, 서울

2021.06 <약속>,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경기

2021.04 <Man은 어디서 왔는가>, 영주맨션, 부산

프로그램

2024.10 라운드스플랫 10월 입주 프로그램, 아하하컴퍼니 주최, 라운드스플랫, 서울

2023.12 <전시 후 도록> 참여, wess 주최, 나선도서관, 서울

수상

2022 youngcreative 작가 선정, oci 미술관, 서울

<https://www.instagram.com/ysolkkkkk/>

1. 김민희

개구리라 주장하는 가상의 유형을 설계하여 '그렇듯한', '그렇만해' 보이는 의문스러운 형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질적인 계열을 가정적 전개로 연결지으면서, 각 작업은 '개구리일 리 없는 개구리'를 표면에 뒤집어 쓰고 실제 없는 정보를 제시한다. 사물을 사진으로 채집하여 상상의 서사로 각색하고, 미완결을 표방하는 소박한 조형의 탐구를 통해 대상과 표상의 간극, 모순과 통념의 간격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우리는 같은 개구리를 가지고 있다.

개구리라는 어떤 대상이 보편적인 문맥으로 표상되는 것에 주목한다. 지금껏 마주하고 수집해 온 개구리는 모두 청개구리뿐이었다. 엉뚱하고 순수한, 자연적이고 명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미끈한 초록색 존재만이 '개구리'라 명명되어 '개구리'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 관습과 관념에 맞힌 개구리를 포착하여, 대상이 하나로 표상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질문하고 각색해 보려 했다.

미끈한 초록색 존재를 방수페인트, 들풀이 함께 부딪히며 끝말잇기처럼 마주치게 되었다. 그 마주침은 우연한 시간의 순간을 넘어서 이질적인 것을 관계시킨 능동적인 움직임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 개구리를 모으고 있었고, 어떤 순간에는 시야가 차단된 상태로 후각과 청각을 통해 방수페인트를 심상에서 감각하고 있었다. 또 다른 순간에는 비에 젖은 들풀을 보며 개구리가 숨어있기 딱 좋은 서식지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이질적인 계열이 같은 순간에 모이게 되었을 때, 이들을 하나의 상으로 관계지어 각각의 성질이 혼합된 일련의 지표적인 이미지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끈적끈적한 촉각의 방수페인트 표면이 개구리 피부와 닮아 보여, 표면에 도막을 형성해 물체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방수페인트의 기능을 개구리의 습성으로 부여했다. 주변의 자연과 비슷하도록 구현된 방수페인트의 초록색은 개구리의 외형적 특징 중 하나가 되었고, 개구리의 서식지로 상상된 들풀은 울음소리의 파장이 반복해서 들려오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개구리로 가정되어 전개된 상상은 또 다른 사물, 장면과도 관계 맺으며 새로운 가정으로 확장되었다.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순수한 궁극증을 촉발하는 사물과 장면을 개구리와 연결 지어 가상의 서사를 상상했고, 원대상의 문맥에 비껴간 개구리의 습성이 연쇄적으로 서술됐다. '숨어있기', '홍내내기', '판단하기', '탐색하기'라는 습성을 중심으로 가정이 전개되며, 각 습성에 부합하는 사물과 장면의 외형을 빌려 와 개구리의 형상을 재현하고 제시했다. 또한 각 사물과 장면을 사진 형식으로 채집했는데, 이들이 단일한 상의 사진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쉽게 개구리로 연출될 수 있었다.

개구리에 이질적인 계열을 관계지어 원대상의 문맥을 지우고 그 표상을 새롭게 각색하려는 과정은 관습과 관념에 대한 의도적인 개입이며, 개구리를 대상화하면서도 사실은 대상과 거리가 먼, 새로운 상을 제시해 보려 함이다. 보편적 문맥에 어긋남을 만들기 위해 미완결을 표방하는 의문스러운 형상으로 사물과 장면을 재현하고 개구리라 제시했다. 완결되지 않아 어수룩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듯한 소박한 조형으로, 개구리의 문맥을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성질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식에 맞힌 고정된 상을 번안하여 대상을 지각하는 과정에 표상과의 간극, 모순과 통념의 간격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랐다.

2022 경희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석사과정 수료

2020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2024 《채집》, 공간파도, 서울

단체전

2024 《토끼굴의 두께》, 숭실센터, 서울

2024 《小品物》, 오온, 서울

2024 《키메라 앤트》, 샘미술관, 서울

2024 《더미북 산더미》, 00의00, 서울

2023 《면면》, caseseoul, 서울

2022 《Modern 書風》, 로운갤러리, 서울

2022 《멘토 멘티 FRIENDSHIP MENTOR&MENTEE》, 한원미술관, 서울

<https://www.instagram.com/mmnhoing/>

1. 다이

구술 형태의 이야기가 서사적으로 연결된 시각미술에 대해 고민한다.

공동체의 기억 속에 은연한 시대적 타자성을 연극적 속성으로 해석하여 회화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구술적 서사를 시각예술로 변환하는 작업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공동체의 기억을 회화로 표현한다.

망각과 기억의 시간성을 반복적인 노동 동작과 천의 염색 과정을 활용하여 '다잉(dyeing)'기법으로 고안해보고 있다. 구술과 회화를 결합하여 시대적 은연한 타자성과 체화를 조명하고 세대와 공동체의 교차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결계록」과 〈결계록〉, 「나날록」과 〈나날록〉, 「참외록」과 〈참외록〉 연작은 마을단위의 설치의 회화와 설치로 구성한 대표작이다.

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KYUNGHEE UNIVERSITY M.F.A. IN Department of Fine Arts
학사 경희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KYUNGHEE UNIVERSITY B.F.A. IN Korean Painting

개인전

2024. 05.14 - 2024.05.20 무명 새와 나비 (KUMA, 서울)

2023. 07.12 - 2023.07.30 사근으로부터 (온수공간, 서울)

단체전

2024. 10.7 - 2024. 10.27 키메라멘트 (샘미술관, 서울)

2024. 01.17 - 2024. 01.27 첫머리 찾기 기획전 (www space, 서울)

2023. 12.27 - 2024. 01.21 면면 기획전 (case seoul, 서울)

2023. 03.10 - 2023. 03.30 원시적 접착제_Primitive Glue 기획전 (카다로그, 서울)

2022. 12.20 - 2023. 1.14 Waiting room 단체전 (수치, 서울)

2022. 9.3 - 2022. 9.17 Modern 단체전 (로운갤러리, 서울)

2022. 7.9 - 2022. 7.14 물고기 도둑의 알 수 없이 사라진 바느질 기획전 (청년예술청 white room, 서울)

2022. 4.15 - 2022. 5.15 파랑 기획전 (오감공간, 서울)

2021. 12.29 - 2022. 1.4 사이세상 기획전 (아트비트갤러리, 서울)

2021 서울 성시도 城市圖 기획전 (정부청사 갤러리, 서울)

2021 회토 '다시 걷다' 전 단체전 (혜화아트센터, 서울)

2021 제 7 회 친교(親交) 멘토 멘티 단체전 (한원미술관, 서울)

2019 홍콩교육대학 교류 展 단체전 (홍콩교육원, 홍콩)

2018 양주 시립 장욱진 미술관 제 3 회 뉴 드로잉 프로젝트 단체전 (장욱진 미술관, 양주)

선정

2023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

<https://www.instagram.com/diedayee/>

1. 양기찬

공백을 감각할 수 있는 형태를 일상의 오브제로 구현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어 왔다. 허공을 향해 뻗고 있는 수직선의 도구들, 지상에서 운용하는 하늘 조각, 밤하늘의 별들을 연상케 하나 실상은 구멍 뚫린 검은 비닐인 등 연출된 상황의 결들은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물의 부재와 허공/공백을 구조상으로 수용한 입체 작품들인 경우가 많았다. 중동 종교예술의 반형상주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창작의 양상이기도 했는데,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인지적 차원으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경외의 표현이었다면, 나의 작업에서 반형상주의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권위를 부여 받지 못한 존재를 기리고자 하는 비어 있는 상징물로 번역되었다. 때문에 각각의 작품에서는 특정한 인물의 얼굴이 구현되길 지양하고, 누군가의 자취나 빈자리를 암시할 수 있는 인물 없는 상황극으로 만들어진다. 통상적인 상황극과 다른 바가 있다면, 기성품과 소모품 등의 대체성과 가변성이 있는 일상 오브제들이 전시장에 기생하여 형성된 임시방편의 조각물들이라는 점에서 선형적인 서사극을 이루기보다는 단발적인 서사를 유발한다. 그래서 압축된 문장과 단어로 심상을 전하는 시와 유사한 경향이 있어 내 작업을 시적인 순간에 머무는 오브제로 설명하고는 한다.

단체전

- 2023 <견고한 공중>, 안팍스페이스, 서울
- 2023 <먼 곳에서부터>, 수애노339, 서울
- 2023 <Waiting Room>, 수치, 서울
- 2022 <어제가 머물다 간 자리, 개항>, 공간운술, 인천
- 2022 <감각의 흔적>, 메탈하우스갤러리, 양평
- 2022 <Youth#8>, CICA Museum, 김포
- 2021 <Multivalent>, 바롬기념갤러리, 서울
- 2021 <SCOUT 11th>, 갤러리 이마주, 서울

https://www.instagram.com/yang_kichan/

1. 이제원

이제원은 서울에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자연의 성장과 인간의 신앙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자유로운 실험을 전개하는 중이다.

2. 케이스 서울에서 나는 전시장을 일종의 인큐베이터로 상정하고 작품을 제작했다. 흙과 유약, 아교와 솜 등의 재료를 작업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로 삼고, 그 단위의 반복 생산을 통해 전시공간 내부에서 무한히 자라나는 미술을 상상해보려고 했다.

201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입학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단체전

2024 <Variation Case>, 케이스 서울

2024 <시선과 노래>, 3Q

<https://www.instagram.com/ohejvvn/>

1. 최희원

최희원은 주로 드로잉을 통해 작업을 구성한다. 그는 드로잉 개념을 평면 위의 선으로만 국한짓지 않고, 조각이나 입체로 확장하면서 두 개념을 뒤섞는다. 드로잉 자체를 매체의 구분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독특한 조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주로 건물의 외벽, 창살, 난간 등에 있는 모양들이나, 잎사귀나 나뭇가지처럼 자연적인 패턴들을 눈길을 두고, 이를 내면화해두었다가 상징적 기호나 즉흥적인 선 등으로 변환한다. 또한 그는 시각정보만큼이나 촉각정보를 더욱 선호한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만큼이나 직접 손으로 만지고 촉각하는 행위를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한다. 그래서 작업 또한 재료 본연의 물성이 잘 드러나도록 투박하게, 최소한으로 가공하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업은 조금 거칠고, 허술해보이더라도 부끄럼 없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작가의 태도와 연결된다.

2.1. 모양, 선, 드로잉

저는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모양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위에 보이는 건물의 외벽, 타일, 사물의 장식적 모양, 혹은 식물이나 동물 등이 만들어낸 여러 패턴에 호기심을 갖고 관찰합니다. 관찰한 데이터들은 머리에서 뒤섞이며 조형적 언어로 변환되어 상징적인 기호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즉흥적인 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지금껏 드로잉을 진행하면서 평면 매체에 거부감을 느껴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보기도 하고, 종이, 천 등의 지지체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여러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사용하는 모양들이 점차 입체 작업에 퍼지면서 혼란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번년도 전시 <Variation Case>와 하반기 전시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의 드로잉 개념은 이제 평면 위의 선으로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브제와 조각의 외적 모습을 형성하기도, 입체 조형의 일부로서 기능하기도 합니다. 평면 매체에 대한 의구심에서 벗어나 저의 드로잉이 확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자유롭게 다뤄보려 합니다.

2.2. 촉각과 재료

저는 무언가를 직접 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에게 시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촉각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의 질감이 궁금해지면 꼭 그것을 만져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촉각적 정보는 손가락 끝에서 인지될 때 기억에 더 오래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료의 사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쓰임새를 바꿔보면서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재료를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갖고 있습니다. 나무, 비누, 석고, 철, 낚시줄, 지푸라기, 실, 종이 등 다체물체 재료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며 작업합니다. 재료의 선택은 의의성을 환기하며 독특한 조형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낚시줄에서 투명한 실을 상상하고 뜨개질을 한다던가, 비누 베이스가 그저 투명한 덩어리처럼 보여 녹여보고 깎아본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가 가진 한계점과 장점들을 이해하면서 재료의 물성을 체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료들을 투박하게, 최소한으로 가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락카나 페인트로 덮여 다른 무언가로 둔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가진 날 것 그대로의 상태, 재료가 가진 본연의 물성을 그대로 보여주려하는 편입니다.

2.3. 공간과 전시

작업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간의 언타간 틈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볼거리가 많은 전시 공간을 좋아합니다. 완전한 화이트 큐브가 될 수 없는 공간들에서 창문, 파이프, 시멘트 자국, 하다못해 콘센트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찾아 제 작업을 매치해봅니다. 그런 공간의 틈새들이 저에게는 전시의 딱딱한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4. 나-작업-세계

'나-작업-세계'는 동료가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나와 나의 작업,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말인데, 저에게는 그것이 제가 보는 세계 그리고 제가 가지는 관심사들이 결국작업에 녹아들 수 밖에 없다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작업은 어딘지 허술한 모양새와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뭔가를 잔뜩 모아놓은 듯 하지만, 정돈되지 않고 그저 좋아하는 것을 그러모은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점잖거나 얌전하지도 않고, 고상하거나 세련된 느낌도 아닙니다. 이런 저의 태도는 솔직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허술하고 부족하더라도 부끄럼 없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려는 태도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작업이 미술 체계 안에서 확고함과 고고함을 가진 어떤 작품이기보다 관객에게 좀더 다가가기 쉬운 하나의 호기심 집합체로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가 가진 태도들을 용하면서 제 작업이 가진 단점들도 적절히 수용하며 작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2024 레이프로젝트서울 <Spider Silk> 2인전 2024 komplex <구부러지는 선> 단체전 2024 caseseoul <Variation Case> 2인전 2023 3Q <돌키우기> 2인전 2023 갤러리 인 HQ <QUEST> 3인전 2022 온수공간 <Peer to Peer> 단체전 2022 RASA <돌맹태: Rockwall> 단체전 2021 토포하우스 <Peer to peer> 단체전 2021 서울문화재단 도시문화LAB <저항하는 기술-The Resisters> 참여작가 2020 로컬캠 커뮤니티 <레일로드 아트 프로젝트> 입주작가 202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전시 <(우리의)꼬리뼈는 사라지지 않는다> 2020 N개의 서울-노원 문워크 <104 간직함> 단체전 2020 공간 가변크기 <인류의 조상은 바나나> 단체전 2017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과학기술대학교-POP UP>

https://www.instagram.com/hioce_work/

1. 류민지

류민지는 일상 속 풍경을 바라보며 느꼈던 감각을 기억하고 축적된 심상이 회화로 드러나는 형식을 연구한다. 그는 실재를 직접 바라보는 경험과 그 대상을 그려내는 일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는 간극을 인지하고, 단순한 재현이 아닌 추상과 구상 사이의 표현을 통해 흔히 바라볼 수 있던 풍경을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순간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그림이 관람자의 기억 속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질길 기대한다.

2. 나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풍경 속에서 감춰진 조형적 규칙과 추상적 감각을 탐구하며, 이를 새로운 회화적 형식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내 작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기억을 매개로 구체적 형상과 추상적 감각이 어우러지는 조형 형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느낀 감각적 인상을 기억 속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창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억을 매개로 한 회화

나는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만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는 의도적으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작업으로, 우리가 본 것을 단순히 모사하는 대신, 기억 속에 남은 본질적인 인상을 포착하려는 시도다. 매일의 차이를 관찰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드로잉하면서, 눈앞의 장면이 아닌 내면화된 감각을 기록한다. 이러한 과정은 풍경을 관찰하는 나의 시각적 감수성을 확장 시키는 동시에, 풍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게 한다.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감각은 작업 과정에서 이미지를 점차 추상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결과적으로 추상과 추상이 공존하는 독특한 조형 형식을 만들어낸다. 이런 나의 작업은 구체적인 형상을 모사하거나 순수한 추상을 시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둘 사이의 연결 지점을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회화는 사라지는 순간을 영속화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현대미술은 이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감정을 시각화하는 새로운 도구로 발전 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회화를 통해 일상의 풍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감각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과정은 감각적 경험이 어떻게 시각적 이미지로 발전하는지를 탐구하며, 회화가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 감각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삶의 흔적을 쌓아가는 과정으로서의 회화

나는 일상 속 사소해 보이는 풍경이 사실은 삶의 본질적 순간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모든 감각을 영원히 기억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회화를 통해 지나가는 순간의 흔적을 남기고, 그 순간이 담고 있는 가치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나의 작업은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 감춰진 의미와 형태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추상성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자와의 감각적 교감을 목표로 한다. 관람자는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기억과 감정을 투영하여 작업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나는 회화가 단순히 하나의 결과물이 아닌, 세계를 재해석하는 과정 자체로 기능하길 바란다. 이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나의 회화가 감각적 경험의 공유 매체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2019 서울과학기술대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졸업

201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24 <Pictures>, 누크갤러리, 서울

2019 <Moving shapes>, 위켄드, 서울

2018 <빛나는 것들>, Keep in Touch Seoul, 서울

2018 <Starry, starry>, 가변키기, 서울

단체전

2024 <Floating matters>, case seoul, 서울 2023 <시선 유희>, 스페이스 윌링앤딩, 서울 2022 <류민지

표현실 2 인전>, 미스터고트, 서울 2021 <축적된 자리>,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20 <맑은 세계>, Hotel

imaginary, 서울 2019 <식물 x 세계>, 무중력시대 무악재, 서울 2019 <Corners3:Cave and Garden>, Keep in

touch Seoul, 서울 2019 <바깥으로 굽는 팔>, 미술세계 갤러리, 서울 2016 <방과 창>, 서울과학기술대학교미술관,

서울 2016 <누구에게나 시선은 열려있다>, 화이트블럭, 파주 2016 <First aid kit>, 갤러리림, 서울 2015 <제 3 의

과제전>, 루비야 다방, 서울 2015 <신예작가 7 인전>, 미술세계 갤러리, 서울 2015 <모모>, 정문규미술관, 안산

수상 및 선정

2024 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지원사업 선정 2021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창작형 지원사업 <LINK> 선정 2017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사업 선정

<https://www.instagram.com/ryumj/>

1. 정현두

그리기를 통해 감각할 수 있는 <상상, 물질, 시간>을 회화와 전시의 형식을 빌어 포개어 놓음으로써, 회화라는 사물에 나의 시간을 투영하려 한다.

우선, 나의 그림은 불완전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보편언어는 사회문화에 속하는 레디메이드이다. 그리고 재현적 이미지는 명사나 문장같이 보편언어로 해석될 수 있다. 나의 회화를 추동하는 감각을 보편언어 이전의 감각으로 가정하고 그림 앞에서 떠오르는 상상을 '언어가[되기 이전, 훼손된, 변형된] 물질'로 남기며 그리기를 이어 간다. 그림을 그리며 떠오르는 상상은 대체로 미지의 인물이 서있는 공간이다. 나는 그리기의 과정 속에서 인물이 나타나고 지워지고 변형되면서 네모난 공간을 잠식해가는 과정을 바라본다. 따라서 네모난 공간을 잠식한 인물은 흡사 보편언어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불가해한 상상의 말을 건네며 마주 서 있는 사물/사람 같다.

이어서, 나의 사람/그림이 불러일으키는 언어적 상상과 물질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목과 그림들의 관계를 전시로 드러내어 왔다. 그림의 제목은 물감의 조형만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상상의 이미지와 행위를 그림에게 부여한다. 동시에 그림들은 그림들의 위치 관계로 인해 서로의 환영성을 방해하여 그저 물감이 칠해낸 벽처럼 전락하거나, 끝없이 새로운 상상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연작으로 이해하고 다루려 하는바, 나의 하루하루가 이야기가 되어가듯, 나의 회화적 상상과 물질과 시간을 공유한 회화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간 시간을 현실과는 다른 차원에서 증명한다.

202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 석사 졸업

2013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24 서서히, 그림자 다리 숨은, A-Lounge, 서울

2019 얼굴을 던지는 사람들, Space Willing N Dealing, 서울

2018 밤과 낮의 대화, Weekend_seoul, 서울

2017 무지개를 쓴 사나이, 공간형, 서울

단체전

2024 Dark Change, Space Willing N Dealing, 서울

2024 Floating Matters, Case_Seoul, 서울

2024 keep going#3, Space Willing N Dealing, 서울

2023 계란에서 사과까지,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2023 Discovery: 12 Contemporary Artist from Korea, Rockefeller Center, Newyork

2023 keep going#2, Space Willing N Dealing, 서울

2022 물질 구름, Art Space 3, 서울

2022 이것은 나(너)의 그림이다(아니다), Space Willing N Dealing, 서울

2021 견고하고 유연하게, 카탈로그, 서울

2020 0-인칭 시점, 경기창작센터, 경기

2019 당신의 삶은 추상적이다, Art Space 3, 서울

2018 The Gallerist, WAP art space, 서울

2018 Lobby Muddy Carpet, 2/W, 서울

2017 Land Play, Keep In touch_seoul, 서울

수상 및 지원

2024 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지원

2023 Shinhan Young Artist Festa

2022 서울문화재단 예술기반지원 RE:SEARCH

2021 서울문화재단 예술기반지원 RE:SEARCH

2017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창작발표형

2016 경제정선 내일의 작가

https://www.instagram.com/doo_odrip/

1.박시오리

박 시오리는 판화의 여러 판법 중에서도 회화와 판화의 중간을 잇는 모노타이프를 주된 작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프레스기 압력에 의해 의도와 우연이 혼재된 모노타이프를 바탕으로 반추상과 추상 사이의 이미지를 만든다. 흘러 내리고 스민 물감 자국 표면에서 납작하게 던져진 화면 속 단서들을 드로잉으로 풀어내며 어떤 형상과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에 흥미를 두고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작가에게 판화의 과정을 수행하며 생기는 우연들은 작업의 주요한 부분으로 작가가 풀어내고자 하는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다.

2.중첩되어 살랑이는 그림자들, 마구 잘린 종이 조각들,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들, 흐르고 흩뿌려진 우연한 자국들, 프레스기에 지그시 눌러지며 스민 물감들과 같이 던져지고 펼쳐진 것들의 틈을 관찰하며 그 속에서 이미지의 단서를 찾아 그림을 그려나간다.
근래에는 어떤 완성된 하나의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펼쳐 보여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단단한 마침표가 아닌 유동적인 쉼표로 보여 지길 바라는데, 이러한 작업 방식은 타인과의 소통에서 행하는 스스로의 방식과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타인과의 관계 흐름과 판화의 과정을 동일선상에 놓고 과정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작업을 모색하고 있다.

2019 추계예술대학 판화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24 Monocase, caseseoul, 서울

단체전

2024 환상,스페이스 깨,서울

2024 <투명한 경계에서, 깃털처럼 가벼운>, 갤러리 메일란, 서울

2024 PL.5, MUP,서울

2022 monopress space,파도 컬렉트,서울

2022 monopress space,공간 파도,서울

2022 <~~~~~>,문화 실험 공간 호수,서울

2022 No mistakes just happy doubts, 상하울, 서울

2022 <OOOOO>, 오온, 서울

2019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한전 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2019 0-2 exhibition, 갤러리 공간 35, 서울

2019 서울 경기 소재 미술대학 우수 졸업 작품전,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2017 일리展 1+2, 공간 일리, 서울

수상 및 선정

2019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특선

<https://www.instagram.com/parkshiori/>

1.오지은

국민대학교 회화전공 석사과정을 졸업(2019)하고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회화를 통해 이미지의 유동성을 포착하려 하며 주로 회화가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것은 타인의 삶을 제삼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모습을 재현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등 유동적인 변화를 거쳐 왔다. 대상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오직 '포착 가능한 순간'만을 붙잡아두는 방식으로 세계를 읽어내려 한다. 따라서 포착하는 순간 지나가는 감정을 담아두기 위해 '불가능한 작업'을 개진한다. 회화가 현실을 완벽히 재현할 수 없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사라지고 왜곡되지만 이를 계속 상기고 복귀하려는 것은 사라지는 풍경을 붙잡아두려는 노력과 같다.

2.우리의 낮은 끝까지 않았어

해가 저물고 집에 돌아오는 길, 하천을 거닐었다. 유독 덥고 습한 날이었다. 걷다 보면 잇고 있었던 장면들이 떠오른다. 그곳에 존재했던 시간과 감정, 관계를 떠올리며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의 부재를 증명하는 일과 같다 생각했다. 하천의 모퉁이에 잘린 풀더미를 보았다. 이상하게도, 잘린 풀더미에서 풍기는 향기가 더 진하고 가득하다. 어떤 장면은 삶을 올곧게 지탱해 주는가 반면, 어떤 장면은 들끓는 돌이 되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의 무게를 드러낸다.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청춘의 시간을 담은 영화를 보았다. 연약한 존재들이 모여 춤을 추는 곳. 지난날, 나를 휘감던 수증기로 가득 찬 방은 청춘의 낭만이었을까. 우리의 시간은 주말의 낮처럼 느슨하고 푸르던 밤처럼 빛나는 위태로움으로 가득했고 유연함과 아름다움, 낭창함과 가쁜 숨이 공존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면은 희미해지고 분위기의 기류만 남는다. 가장 근접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색(color). 더욱더 또렷해지는 색이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젊은 날을 알기에 추억을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욕망을, 나는 또 다른 사랑이라 이름 붙이기로 했다. 상실된 시간, 사람이 지나간 자리, 추억을 사랑하고 닿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 자욱한 안개와 같은 감정을 손끝으로 쫓으며, 현실 밖의 것들을 통틀어 사랑이라 불렀다. 나를 비추기도, 너를 담아내기도 하는 잔. 그 손 끝에 묻은 다정함만 생각하며 그날의 풍경이 쓸쓸함으로 돌아 온대도 빛이 나길 바랐다.

2019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회화전공 석사 졸업

2015 수원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2024 녹색 현기증, Hall 1, 서울 (서울문화재단 후원)

2022 유기농 같은 사랑, 드로잉 룸, 서울 (서울문화재단 후원)

2020 나는 늘 춤추고 싶어요, 예술공간 서:로, 서울

2020 당신의 잔은 안녕하십니까, 갤러리 그리다, 서울

2019 늘어트린 사물들, 성북예술창작터 '메타 매칭' 프로젝트, 미술과 공간, 서울 (성북문화재단 주관)

단체전

2024 Deux souvenirs, Case Seoul, 서울 2024 무언의 순간들, 공간 시은, 전주 2024 A Tasty of Honey, 에임빌라&오브제후드, 부산 2024 Momentary Momentum, Prompt Project, 서울 2024 기대의 물결이 가닿은 시선, 팔복예술공장, 전주 (전주문화재단 주관) 2023 SUNROOM, BB&M, 서울 2023 나도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 CNK갤러리, 대구 2023 신/여성의 탄생 경희, 현숙, 원원, 규원, 자하 미술관, 서울 2023 Ever Lever Art Project, 아트노이드 178, 서울 (성북문화재단 주관) 2023 SUMMER FANTASIA, 스페이스21, 서울 2022 안티 로망스, 을지예술센터, 서울 2022 열 개의 달과 세 개의 터널, 토탈 미술관, 서울 2022 선택된 이야기, 옥상 팩토리, 서울 2022 겨울의 소리, 오브제 후드, 부산 2022 Perigee Winter Show, 페리치 갤러리, 서울 2022 PLAY PAUSE REWIND, 갤러리 in, 서울 2021 오늘, 순간, 감정,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21 아마도 우리를 이끄는 것은 단지 불길한 예감일지도 모른다, 프로젝트 스페이스 영등포, 서울 2021 읽혀지지 않는 지도, 아트스페이스3, 서울 2021 흔들리고 미끄러지는 떨림, 포항 (포항문화재단 주관) 2021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 갤러리 인, 서울 외 다수 수상 및 선정

2024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지원 창작지원 발표 프로그램 선정 2022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지원 창작지원 발표 프로그램 선정 2022 화랑 미술제 ZOOM-IN 선정 작가 2021 포항문화재단 청년 작가전 선정 2018 겸재정선 내일의 작가상, 겸재정선 미술관, 서울 2016 전국대학미술공모전. 홍익대학교 홍문관, 서울 2015 전국대학미술공모전. 성산미술관. 마산 2014 한국현대판화학회 신인공모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2023 팔복 예술 공장 레지던시 6기 입주 작가, 전주문화재단 주관 2019 성북예술동 메타 매칭 레지던시

성북예술창작터, 성북문화재단 주관

작품 소장

2020 서울시청 문화 본부 박물관과 2019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2016 미술과 비평 2015 미술과 비평

1. 장종훈

펜의 얇은 선들이 겹쳐지며 완성되는 이미지의 밀도감에서 큰 힘이 느껴짐과 동시에 종이 위에 같은 색의 여러 이미지들이 뒤엉키며 형성된 형태 속 각기 다른 사연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사랑한다. 즉, 멀리서 보아야 확연히 보이는 풍경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쌓인 각 각의 여러 입자들을 이루는 선이야말로 관심사이다. 종이 안에는 모래사장 바닥을 뽀족한 나뭇가지로 굵듯 무수한 선들로 채워지고 뭉쳐진 조각들은 각기 달라붙어 모양새를 만들어낸다. 부드러운 공기 속에서 검정색 손톱으로 하염없이 할퀴는 모습은 종이 위에 막연하게 겹쳐진 선을 통해 구현되는 듯하데, 이는 공허한 부분 속 선으로 채워보려는 시도이자 열중하고 있는 순수한 자세로 표출된다. 오늘날 서로 다른 성질들이 모여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듯, 작은 요소들이 모여 공존할 때 비로소 꿈틀 거리며 나오는 생동감을 표현하고자 한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수집한 것들은 나만의 속도로 이야기를 담아낸다. 주로 펜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하나의 캔버스에 많은 이야기를 담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드로잉의 필요성은 마치 시나리오 콘티처럼 그림이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펜 드로잉으로 이어지며 모든 작업의 시작은 펜의 느낌에서 비롯된다.

일상적 순간의 이미지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순간들과 연관성들을 세심하게 탐구한다. 이동하며 종종 마주치는 저수지, 툇게이트와 같은 익숙한 장소들에서 그곳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의 파편을 수집하며 작업을 이어간다. 작업은 하나의 장소에서 출발해 그 속에 등장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해나가는데 보는 이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하루의 다양한 감정과 순간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잊고 지나쳤던 장면들과 확장된 생각들이 거친 종이 위에서 되살아나 그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경험이 펼쳐졌으면 한다.

2020 프랑스 Toulon 국립미술학교(ESADTPM) 예술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24 <Dusk Mysterious Zephyr>, TYA갤러리, 서울

2023 <저수지 속 움직임>, 갤러리ERD, 부산

2021 <WOE>, 백두강산, 서울

단체전

2024 <Axis 2024>, 021갤러리, 대구

2024 <겹기억 Deux souvenirs>, case seoul, 서울

2023 <미묘한 몸 Subtle Body>, Placemak BKK, 방콕

2023 <Zine 블록열람>, 공간:일리, 서울

2022 <GCS annual project, Exclusive: Mr. Lawrence>, 개오망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서울

2021 <Psycho Village>, 영산 녹사평대로 2-1-6, 서울

<https://www.instagram.com/jangjonghoon/>

1. 객인탄

객인탄은 과거의 잔여물을 재구성하여 현재의 조각을 제작하는데 집중한다. 미술사에 서술된 회화, 조각들을 자유롭게 해체하여 새로운 조형들을 실험한다. 또한, 객인탄의 조각은 미술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문제와 불만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한 유희의 장이 된다. 조각을 공간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시간과 풍경을 조형으로 기록한다.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물질로 형상화하고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2. 조각은 무엇을 위한 배경이 된다. 조각 전신을 배경으로 여러 형상, 촉각 그리고 내용들이 결합되고 해체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각에 실시간으로 집합되는데, 이 과정은 즉흥적이며 제멋대로의 방식이다.

조각의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는 앞서 만든 작품들과 여러 부분을 공유하는데, 여기서 항상 기준과는 또 다른 동세를 상상하고 손으로 그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한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대상이 추상적으로 결정되면, 이 대상은 미술사 속의 회화와 조각, 인물 그리고 온, 오프라인 상에서의 이미지, 텍스트, 에피소드 등 많은 것들과 연결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각 전체에 뒤섞이며, 수많은 세부 조형으로 표현된다.

나의 최근 조각들은 과거의 여러 시간이 현재의 조각에 전개되고 해체를 반복하면서 독특한 조형으로 변형된다.

조각은 내 머리 속에 가득 찬 잡생각을 펼치기 위한 배경이 되고 있다. 조각에 또 다른 조각이 설치되고, 다양한 촉각이 겹쳐지며 굴곡진 표면 위에 물감이 덧 발린다. 나의 현재 조각은 재밌는 상상이 조형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순수하게 즐기고 유희한다.

2017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2013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졸업

개인전

2022 Palette _ 공근혜갤러리, 서울

2020 Sculpture Gate _ space 9, 서울

2019 Unique Form _ studio 148, 서울

2016 3의 영역 _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갤러리, 서울

단체전

2024 서커스 이펙트 _ d/p, 서울

2024 바다-노인 _ case seoul, 서울

2024 공원, 섬, 사람들 _ 소마미술관, 서울

2024 서울조각상 _ 열린송현녹지광장, 서울

2024 환상진동 _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

2024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_ K&L Museum, 경기도

2024 점점 다가서는 우리들 _ 자하미술관, 서울

2024 쿵 _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23 산-한량 _ 챔버1965, 서울

2023 조각모음 _ 문래예술공장, 서울

2023 영원한 침묵을 비취다오 _ GCS, 서울

2023 대발생 _ 은평문화예술회관, 서울

2022 조각 총동 _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22 범은 그려도 빠다귀는 못 그린다 _ GPU, 서울

2022 MZ세대의 후기 아날로그적 경향들 _ 오산시립미술관, 경기도

2021 ULT _ GPU, 서울

2021 Auto _ GPU, 서울

2021 인저리타임1 _ WESS, 서울

2021 인저리타임 _ 뮤지엄헤드, 서울

2021 Against _ 김세중미술관, 서울

2020 에피파니아 _ 운수공간, 서울

2019 cover version _ A -Lounge, 서울

2018 콘크리트 산책 _ 2/W, 서울

2018 불만이 작업이 될 때 _ 서울시 중구 을지로145-1 황금빌딩401호

2017 Sema 예술가길드 - 표본참고 _ sema참고, 서울

2017 A=A` _ 바움아트갤러리, 서울

<https://www.instagram.com/kwakintan/>

1. 김도연

김도연은 종종 전시장에서 며칠 밤을 새우면서 벽화를 완성할 정도로 그리기 행위에 여전히 힘을 쏟고, 화면에 재료를 안착시키기 위해 손을 부단히 움직인다. 얇은 장지에 세밀하게 그린 그의 세필화를 보면 그의 지난(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내면에 잠재된 아직 펼쳐놓지 않은 무궁무진한 이야기는 얼마나 (남아)있을지, 하물며 작가에게 서사의 완결은 과연 존재할까 궁금해진다. 김도연은 개인의 경험과 무의식에서 나온 감각적 심상을 주로 드로잉으로 연속적인 서사 형식을 만들고 있다. 인간과 비인간, 여성과 남성, 하나의 규정할 수 없는 존재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김도연의 세계는 매번 새로운 풍경을 제시한다.

2. 《보내는 사람, 김도연》(에브리아트, 2022)은 《곱슬머리 옥니박이 하고는 말도 말랬다》(얼터사이드, 2021)에서 진행한 관객 참여 프로그램 <폼딩폼딩>에 참여한 관람자에게 답장한 그림들이다. 알 수 없는 덩어리를 계속해서 그려내는 내게 덩어리가 품은 말을 들려준 관람자의 이야기는 다양했다. 알기 힘든 수식의 선부터 전시의 감상, 나의 그림으로 떠올린 그들의 기억과 이야기 그리고 공백의 선까지. 답장을 그리던 나는 지난 개인전의 곱슬머리에 대해서 다른 접근 방법을 찾기도 했지만 곱슬머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시간이 사실 더 많았다. 어쩌면 스스로의 작업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핑계일 수도 있다. 나는 관람자와의 소중한 대화를 원했을 것이다. 나는 그림으로 그린 흔적들에 대한 관람자의 선이 고이 담긴 쪽지를 조심스레 펼쳤다. 그리고 그의 말을 곱씹으며 답장을 골랐다. 그 대답은 우리의 대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잊히지 않도록 나의 일기에도 기록되었다. 수신을 기대치 않았던 카드에 답장이 왔다고 입을 활짝 열은 우편함에 기뻐던 나의 지난 날처럼.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도착한 집 앞 우편함에 고지서가 아닌 나의 카드로 행복하였던 나의 카드 놀이 수집가처럼. 나는 카드놀이에서 배운 경험들 바탕으로 우리의 대화가 재밌게 간직되도록 전시를 준비하였다.

아무런 목적 없이 허무맹랑한 십년의 목표로 태어났던 놀이는 수신자와 선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자신의 의미를 찾아갔다. 크리스마스라는 옷을 벗고 그림에 대한 고민의 얼굴을 가지기도 했고,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서로의 마음을 직접 만질 수 있었으며 '1'이라는 초조함의 숫자 없이 차분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누리기도 하였다. 나는 희미하게 흐릿해지는 기억의 말보다 손때가 누렇게 묻은 기록의 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의 선은 머릿속에서 잊혀질 무렵에 다시 몸과 만나게 되면 그 속에 품어진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여준다. 그렇기에 카드놀이의 약속은 끝났지만 나는 사랑하게 된 카드놀이를 또 품을 것 같다.

202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2016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현대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22 《보내는 사람, 김도연》, 에브리아트, 서울

2021 《곱슬머리 옥니박이 하고는 말도 말랬다》, 얼터사이드, 서울

2019 《개나, 새나, 냄비》, 어쩌다갤러리2, 서울

단체전

2024 《화이트스페이스》, 수림 아트큐브, 서울 2024 《에잇》, 우민아트센터, 청주 2024 《바다-노인》, case seoul,

서울 2024 《나-비-꿈》, 에이라운지, 서울 2024 《무수히 뚫린 창과 여러 겹의 세계》, 신한갤러리, 서울 2023

《PL.3》, MUP, 서울 2023 《산-한량》, 챔버1965, 서울 2023 《One Fine Day》, 페이토갤러리, 서울 2023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 갤러리 인 HQ, 서울 2023 《세상의 모든 드로잉》, 아터테인, 홍천미술관, 서울, 홍천 2022

《페리저원터쇼》, 페리저갤러리, 서울 2022 《저-선생(楮先生)》, 오온, 서울 2022 《몸뚱》,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29-2 6층 옥상, 서울 2022 《's'간극 유행하기 : 사이시옷 프로젝트_초록》, 공간:일리, 서울 2022 《남은 벽

빌려드립니다》, 상하움, 서울 2022 《나, 무로부터 열람》, 공간:일리, 서울 2022 《~~~~~》, 문화실험공간 호수, 서울

2022 《OOOOO》, 오온, 서울 2021 《NEW TYPE》, 디아트플랫폼 요갤러리, 서울 2021 《LinoRhino4》, 8R, 서울

2021 《크르릉》, 공간:일리, 서울 2021 《수행하는 회화》, TINC(This Is Not a Church), 서울 2020 《Cutting

Edges 12 Printmakers》, 스페이스 나인, 서울 2020 《CRR 2020》, 문화예술공간 탱크, 제주 2019 《이제 침대를

망가뜨려 볼까》,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2019 《XOXO》, 누크갤러리, 서울 2018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죽진미술관, 양주 2017 《미술상 수상전》, SDU갤러리, 서울 2016 《Artiroom》, 갤러리맥, 서울 2015

《AD HOC》, 노암갤러리, 서울 2014 《Raw Regard》, 최정아갤러리, 서울 2014 《Position 3》, 노암갤러리, 서울

<https://www.instagram.com/jeffrothat/>

1. 이상균

이상균은 자연 풍경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록하고 수집한 정보와 구조물을 직접 마주했을 때의 감각적 경험을 토대로 평면을 구획한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구인 먹줄로 스케치한 후 많은 양의 유화 물감과 미디어를 섞어 접착시킨다. 평면에 구축하듯 접착시킨 물질은 붓질을 통한 재현과는 거리가 멀지만, 물질이 다뤄지는 방식은 보다 대상에 더 가까워진다. 대상이 상기되는 도구와 물질의 운용 방식, 색의 선택은 작가에게 통제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만들어준다.

2. 구조물은 만들어진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며 말없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거대한 덩어리를 마주했을 때, 마치 얼어붙은 듯 바라보게 만드는 물질의 힘과 자연 속에 이질적으로 놓여있는 당황스러운 존재감이 내게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그 규모와 지나치게 다듬어지지 않은 외형, 시간이 지나 풍화되어 가는 표면들이 흥미로웠고 이를 통해 어떤 조형적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었다. 여러 시점에서 그것들을 관찰하며 발견하게 된 힘과 물질의 작용을, 내가 그동안 진행해 온 회화의 제작 방식과 비교하며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화가로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작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직접 마주했을 때의 감각과 경험은 사진으로 기록되고, 이는 작업실에서 평면을 구획하고 물감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대상이 정해지면 바탕에 먹줄을 사용하여 스케치한다. 설정된 범위를 거뜬히 감당하며 직선을 만들어내는 먹줄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구이지만, 일반적인 선 굵기와는 다르게 먹줄을 머금은 줄이 튕겨지며 순간적인 타격으로 만들어내는 선의 형상과 미묘한 흔들림은 이것을 회화적인 도구로 여겨지게 하였다.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회화적인 형상을 가진 직선을 만들어내는 이 도구의 성격이, 그림의 대상이 지닌 속성과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무 패널에 구조물의 실루엣과 시점에 따른 변화를 의식하며 먹줄로 스케치한다. 이제 이 스케치는 그리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가이드의 역할을 하며, 다음 단계를 위한 가능성의 윤곽을 설정한다.

채색 단계에서는 먼저 표현에 필요한 알카이드 수지와 왁스 등의 미디어를 주제가 되는 많은 양의 유화와 섞어 원하는 물성을 만들고 조색한 후 이것을 헤라와 나이프 등을 사용하여 설정된 면적에 얹어서 접착시키고 각을 잡으며 두께를 만들어낸다. 직선적이고 두툼한 물질의 표현은 그림의 대상인 인공물이 구축될 때 필요한 인공의 힘을 의식하며 정착한 방법이다. 여러 힘이 작용하는 건설 현장 내부에 직접 들어가 기록한 사진과 기억 속 구조물에 대한 경험은 먹줄을 따라 화면에 만들어진다. 그림의 기준선이 되는 먹선은 최종적으로 드러나거나 가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화의 표면 위에 먹여지기도 한다.

대상과 표현기법 자체를 동일시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현재의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다. 이러한 과정으로 화면에 자리 잡은 물질의 형상은 붓질을 통한 재현과는 거리가 멀지만, 물질을 다루는 방식과 태도는 대상에 더 가까워진다. 전통적인 재현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림을 그려나갈수록 중력을 이겨내며 만들어지는 물감의 두께와 각도, 그림자 등이 내게 중요한 조형 언어로 여겨졌다. 대상이 상기되는 그리기 방식과 색의 선택은 화가인 나에게 통제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만들어준다.

202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석사 졸업

201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조형예술학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24 《DATUM》, 팩토리2, 서울

2020 《SAFE FAIL》, 아트스페이스128, 대전

2018 《2018 아트랩대전》, 《My Earth Worker》, 이응노미술관 신수장고 M2 프로젝트 룸, 대전 2인전

2024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 케이스 서울, 서울

2024 《Context Switching》, 문화살롱5120, 서울

2023 《하나 그리고 하나》, 엠앤플로우 갤러리, 서울

2022 《철요의 방》, 라라앤, 서울

2019 《DELAY KIT》, 소소, 서울

단체전

2024 《THE GROUP SHOW PART 01》, 디 언타이틀드 보이드, 서울 2023 《공유시선》, 문화살롱5120, 서울

2023 《보쉬르센의 여름》, 이응노미술관, 대전 2022 《주름 (가시) 덩어리》, 갤러리 이함, 파리 2021 《NEXT CODE

2021》,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19 《조각 그림》, 위켄드, 서울 2019 《IVY ROOM》, 어쩌다 갤러리2, 서울 2017 《

타이포잔치 2017:몸 5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문화역서울 284, 서울

레지던시

2022 파리이응노레지던스, 고암문화재단, 보쉬르센, 프랑스

https://www.instagram.com/gyun_i/

1. 하성욱

지난 5년 동안 가족 공예업에 종사했었는데, 이때 가족은 소비를 위해 기능과 퀄리티에 치중되어 가족이 가진 물성이 국한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만들기의 재료가 아닌 표현의 재료로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 -세워지기-

처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서 일할 때였을까. 아니면 불안정한 주거 공간에서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꼈을 때였을까. 분명한 지점을 짚을 수가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책상을 지반 삼아 골조를 세우고 벽을 쌓아 세웠고, 본능인지 버릇인지 모르게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잡힐 정도의 적당한 크기가 되면 한쪽 구석으로 치워두고 새로 만들기를 반복했다. 가끔 크기가 큰 작업들이 여러 의도 속에서 생겨날 때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보존 주기가 극히 짧았다. 공간 유지의 위기가 찾아올 때면 어김없이 책상 위 혹은 그 아래의 것들만 간신히 남길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통조림처럼 쌓여 있었다. 어느덧 나는 책상 위를 안전지대로 여기며, 그 범위를 넘지않을 만큼만의 사이즈로 구조물을 만들어 쌓는다. 이를 조립할 수 있는 단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더욱 견고한 모양새로 조각하여 세우는 등 그 위에서 나의 조각들이 존립할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그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최근엔 가족을 표면으로 사용하면서 내부에 사용될 소재의 한계에서 벗어나 가볍고 유연한 재료들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고유한 질감이나 촉감 그리고 손질에 따라 변화하는 색감이 테이블 위에서 세워지는 조각의 크기와 형태에 적용되면서 수공적 특성을 띄게 되었는데, 이는 지난 몇년간 판매를 위해 미관과 기능에 치중해 제품을 만들 때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웨ळे이드를 표방하면서도 기능없이 조형된 가족, 거센 마찰로 생긴 상처와 지저분한 표면은 내가 경험한 소비 문화의 중심에서 그 효용성을 해체하는 동시에 조각적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또한 단단하지만 가벼운 형태는 다른 조각들과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설계를 가능하게 했다. 때로는 정확한 수치로 재단하여 조립이 가능한 동시에, 해체했을 때 흔한 박스에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피감을 취한다. 또 때로는 기존의 조각들을 우연찮게 쌓게 되면서 그 틈새 구조를 보강하기도 한다. 그렇게 지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건축물처럼 세워지거나 군집된 형상을 이루기도 하며 공간에 조화된다.

얇은 가족 표면 위로, 재단된 여러 형태들이 또 다른 표면이 되어 파고들어 스며진다. 드로잉으로 존재하던 형태가 가족으로 옮겨지고 조각들은 이제 유동적인 화면이 된다. 배색을 활용해 패턴을 넣거나 두께 차이와 손질로 층을 만들기도 한다. 잘 짜여진 표면에 내가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싶은 이미지들을 새겨 넣는다. 때론 시차를 두기도 하며 관참은 기억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 위로 레이어를 쌓고 시간과 이미지의 층위를 더하기도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쌓인 경험. 그로부터의 인상과 관념, 재료, 취향, 습관 그리고 미래를 바라를 마음까지, 작업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세워진다. 나는 나와 관계하며 지나온 어느 순간들의 형상을 더듬으며 그것들이 나의 시공간 바깥에서도 존립하는 형태를 상상한다. 때로는 세우는 입장에서 또 때로는 세워지는 입장에서.

2018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부 졸업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대학원

2인전
2024 CASE SEOUL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 서울

https://www.instagram.com/ha_sung_uk/